

1. 다음은 한반도의 주요 신석기 유적지를 표시한 지도이다.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가) - 좁쌀이나 피로 보이는 탄화된 곡물이 나왔다.
- ② (나) - 흙으로 빚어 구운 사람 얼굴 모습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 ③ (다) -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 돌도끼, 돌화살촉 등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 ④ (라) - 무덤 구조를 알려 주는 돌무지 시설과 여러 몸체 분의 사람 뼈가 나왔다.
- ⑤ (마) - 다수의 뿔석기와 덧무늬 토기, 질이 거친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정답: ④

* 신석기 유적지: 제주도 한경 고산리, 강원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등 주로 강가와 해안가에서 발견된다

①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와 평양의 남경 유적에서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어 잡곡류(벼농사(X), 조, 피, 수수의 잡곡류 경작)가 이미 신석기 시대에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양양 오산리: 덧띠토기, 눌러찍은무늬토기 등 신석기 초기 토기와 사람 얼굴 조각이 나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예술에 관한 흥미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③ 서울 암사동: 신석기 집터와 바닥이 뽀족한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나왔으며 돌도끼, 그물추, 불에 탄 도토리 등이 출토되었다.

④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폐총)와 토기류(빗살문늬토기)와 치레걸이가 나온 것이 특징이다.

* 통영 연대도 폐총에서 한국 신석기시대의 전기(全期)를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인 덧무늬토기와 무덤 구조를 알려 주는 돌무지 시설과 여러 몸체 분의 사람 뼈가 나왔다. 인골(人骨)이 함께 나왔다

⑤ 제주 고산리 유적: 후기 구석기 최말기 세석인 문화의 전통 속에서, 뿔석기, 덧무늬 토기 및 각종 박편 양면 가공 석기 조성을 보이면서 저화도의 원시형 고토기인 식물성 섬유질 토기(고산리식 토기)를 사용한 한국 초기 신석기 문화의 실체를 보여 주고 있다.

2. 다음은 어느 초기 국가에 대한 기록이다. 이 나라가 있었던 지역에서 후대에 벌어진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할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간다.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집에서 그 돈을 지불한 후에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삼국지>

- ① 김윤후가 군민의 힘을 모아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 ② 발해가 멸망한 후 정안국이 세워져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서희의 활약으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후 강동 6주를 두었다.
- ④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원으로부터 영토를 수복하였다.
- ⑤ 갑신정변 직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기지를 설치하였다.

정답: ④

* 옥저: 제시된 자료는 민며느리제이고 함경남도 지역에 위치하였다

옥저는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 옥저는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을 공납으로 바쳤다. 옥저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족의 한 갈래였으나,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의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또,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① 몽고의 2차 침입(1232) 때에 김윤후는 민병과 승군을 이끌고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撒禮塔)의 군대를 물리쳤고, 몽골의 5차 침입(1253) 때에는 충주성에서 관민을 이끌고 예쿠(也窟)의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② 정안국의 위치: 발해의 유민이 세운 국가이고 압록강 중. 하류 유역(평북)에 위치하였다.

③ 강동 6주의 위치: 압록강 하류 부근(평북)

④ 쌍성총관부의 위치: 철령 이북(화주), 즉 함경남도 지역 대부분을 말한다

⑤ 거문도는 전남 남해안에 위치

3. 다음 유물과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이 중국 군현의 지배를 받았다.
- ② 위만 조선의 세력이 커지면서 한나라와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 ③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이 성립하여 세력을 키워 나갔다.
- ④ 압록강 중류 지역에서 고구려가 일어나 중국 세력과 대립하였다.
- ⑤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삼한이 성립하였다.

정답: ③

* 고조선의 세력 범위

•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족장 사회들을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비파형 동검의 출토 분포로써 알 수 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탁자식)이 나오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전기 고조선).

① 한 군현 설치: 고조선 멸망(b.c 108) 이후

② 위만 왕조(b.c 194 이후)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④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이 부여의 지배 계급 내의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여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b.c 37). 초기에는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환인) 지방에 자리잡았는데 점차 한군현과 항쟁하며 발전해 나갔다.

⑤ 고조선 사회의 변동(漢과의 전쟁 중 조선상 역계경의 남하 등)과 멸망에 따라 대거 남하해 오는 유이민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가 보급되어 토착 문화와 융합되면서 사회가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마한, 변한, 진한의 연맹체들이 나타났다.

4. 표의 (가)~(마)에 들어갈 용어가 잘못 연결된 것은? [1점]

한자어	개정 고고학 용어
半月形石刀	반달 돌칼
紡錘車	가락바퀴
立石	(가)
羨道	(나)
甕棺墓	(다)
有溝石斧	(라)
積石木槨墳	(마)

- ① (가) - 선돌 ② (나) - 널길 ③ (다) - 독무덤
 ④ (라) - 홈자귀 ⑤ (마) - 돌무지무덤

정답: ⑤

* 고고학 용어

반월형석도(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에 곡시의 이삭을 자르는 도구

방추차(가락바퀴): 신석기 시대에 솜이나 털 따위의 섬유를 자아서 실을 잣는 데 쓰는 가락에 끼워 그 회전을 돕는 바퀴.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입석(선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길쭉한 자연석이나 그 일부를 가공한 큰 돌을 어떤 믿음의 대상물이나 특수 목적을 가지고 세운 돌기둥 유적.

(나) **연도(널길):** 굴식돌방무덤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고분(古墳)의 입구에서 널방[玄室]에 이르는 통로

(다) **옹관묘(독무덤):** 철기 시대에 유행했던 크고 작은 항아리 또는 독 두 개를 맞붙여서 관으로 쓰는 무덤 양식. 영산강 유역 등 한반도 남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라) **유구석부(홈자귀):** 청동기에서 서기 전후 철기 시대에 유행했던 가자형 자루에 묶어 쓰도록 홈을 파놓은 자귀의 일종.

(마)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 지하에 무덤광을 파고 상자형 나무덧널을 넣은 뒤 그 주위와 위를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바깥을 봉토로 씌운 신라 귀족의 특수무덤. 많은 껍묻거리가 도굴되기 힘든 구조 속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⑤ 돌무지무덤은 적석총(積石塚)이다.

5. 자료의 (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2점]

- 태조 대왕의 이름은 궁(宮)이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어수(於漱)이며, 유리왕의 아들 (가) 재사(再思)의 아들이다. 어머니 태후는 부여 사람이다.
-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乙弗)이고, 서천왕의 아들인 (가) 돌고(地固)의 아들이다.
- 문자명왕의 이름은 나운(羅運)이고, 장수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왕자이며, (가)인 조다(助多)인데, 조다가 일찍 죽자 장수왕이 궁중에서 기르면서 대손(大孫)으로 삼았다.

- ① 상가(相加) ② 대로(對盧) ③ 패자(沛者)
- ④ 고추가(古雛加) ⑤ 우태(優台)

정답: ④

* 고구려의 고추가: 고구려 왕족층

고추가는 **왕족 관직**(4등급). 고구려의 5부 중 **왕을 배출한 계루부의 대가(大加)**, **전왕 즉인 소노부의 적통대인(嫡統大人: 부족장)**, **왕비즉인 절노부의 대가**를 칭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이 칭호를 사용한 계루부·소노부·절노부는 5부족 중에서도 가장 우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에 따라 4세기 이후에는 각 부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왕실 내의 제한된 범위에만 고추가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① 상가(1등급): 상가는 그 명칭이 가를 영도한다는 뜻으로 제가세력을 대표하고 통솔하는 제가회의(諸加會議)의 의장으로 추정된다.

② 대로(2등급): 대로는 패자와 교치되는 관등인데,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패자의 기능을 대체하면서 성립한 관등이었다. 그러나, 대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으나, 후기의 최고 관등인 大對盧가 대로에서 분화된 관등임을 고려하면 초기 관등 조직에서도 최상위 관등으로서 대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패자(3등급): 나부의 최고 유력자들을 편제한 관등으로 左右輔 · 國相 · 中畏大夫 등 최고위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다. 아울러 패자는 나부의 군사를 동원하여 대외전쟁에 나서는 등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⑤ 우태(6등급): 친족집단의 장들이 지녔던 일반적 칭호가 官名化한 것으로, 곧 나부의 제가세력을 편제하는 기본적인 관등으로 기능하였다. 위계상 패자나 대주부보다 아래이지만, 주요직인 중외대부나 국상에 나아갈 수 있는 관등으로서 패자 · 주부와 더불어 당시 제가 세력의 상층부를 차지하였다.

6. 다음은 조선 시대 특정 관리가 수행해야 할 임무이다. 이와 같은 임무를 지녔던 관리들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 農桑盛	• 學校興	• 詞訟簡	• 奸猾息
• 軍政修	• 戶口增	• 賦役均	

— < 보 기 > —

ㄱ. 세종대의 한성 판윤 맹사성
ㄴ. 인조대의 의주 부윤 임경업
ㄷ. 고종대의 강화 유수 조병식
ㄹ. 광해군대의 파주 목사 한백겸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조선의 지방관(수령)중 외관.경관직 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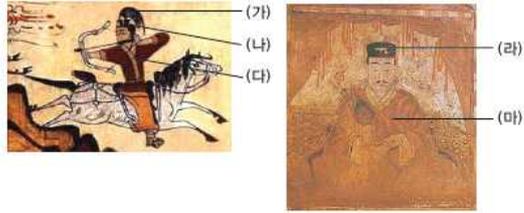
<수령의 7가지 임무: 수령 7사(守令七事)>

1. 농사철에 알맞게 씨를 뿌릴 것 (농상성: 農桑盛)
2. 유생을 모아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글짓기를 시험해 유학 및 문학에 정진하도록 할 것 (학교흥: 學校興)
3. 법을 잘 지켜 민에게 올바름을 보여줄 것 (사송간: 詞訟簡)
4. 용모를 잘 관찰해 간사스럽고 교활한 사람을 찾아내어 없앨 (간활식: 奸猾息)
5. 때맞춰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히 밝힐 것.(군정수: 軍政修)
6.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게 할 것(호구증: 戶口增)
7.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부역균: 賦役均)

㉠, ㉡: 외관(지방관)에는 각 도의 관찰사(종 2품)와 산하 부의 부윤(도의 감영이 있는 곳), 대도호부사(정 3품), 도호부사(종 3품), 목의 목사(정 3품), 군의 군수(종 4품), 현의 현령(종 5품), 현감(종 6품)이 있다

㉢, ㉣: 수도의 장인 판윤(정 2품)과 주변 지역(개성.강화.수원.광주)의 장인 유수(정 2품 또는 종 2품)는 성격은 지방관이지만 경관직(京官職)이다.

7. 다음 고구려 고분 두 벽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는 고구려 사람들이 관에 꽂았던 새깃으로, 많이 꽂혀 있을수록 높은 신분을 나타냈다.
- ② (나)는 책(幘)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자주 썼던 모자이다.
- ③ (다)는 저고리가 왼쪽으로 매여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라)는 백라관(白羅冠)으로 수서(隋書)에는 고구려의 왕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 ⑤ (마)는 두루마기로 방한용보다는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장식용으로 쓰였다.

정답: ②

* 고구려인의 의관

좌측 그림(무용총 수렵도): 고구려인들은 상투에 소골(절풍)을 썼고 그 위에 새 깃털이 꽂혀있다(조우관). 모자의 형태는 위는 뾰족하고 가운데는 둥글며 아래쪽에는 끈을 연결하던 구멍이 뚫려 있다. 밑이 굴곡이 저 정수리에 살짝 덮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측 그림(안악 3호분 귀족도): 백라관(왕이나 고관대작이 쓰던 모자)을 쓴 귀족

- 고구려의 의복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두루마기와 저고리, 둘째는 바지, 셋째는 치마이다.

고구려 두루마기와 저고리의 특징은 주로 왼쪽으로 여미며(좌매임), 허리띠로 묶는 것이다. 깃 모양은 대개 직선 형태를 띄고 있으며, 소매는 좁고 긴 것이 많으나, 폭이 넓은 것도 있다. 소매 끝과 깃, 실 등에는 선을 넣기도 했는데 흑색, 홍색, 청색, 백색, 황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사용되었다. 저고리는 대개 엉덩이를 반 이상 덮을 정도로 긴 편이다. 겉옷 중에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들은 의식 복장을 제외하면 왕의 경우는 금테를 둘렀고, 대신들은 금테와 은테를 섞어 둘렀다고 한다.

- ① 소골은 고구려에서 사인급(士人級) 이상의 남자들이 쓰던 절풍건(折風巾)의 하나이다. '소(蘇)'는 솟[高], '골(骨)'은 갈[冠]의 사음(寫音)으로, '솟은 갓'이라는 뜻이다. 자줏빛 천으로 만들어 금·은으로 장식하였고, 벼슬한 사람은 양쪽에 새깃을 꽂았다. 즉 신분이 높을수록 많은 새깃을 꽂았다.

- ② 幘(책)은 두건 형태의 모자로서 그 위에 새깃을 꽂을 수 없다.

- ③ 저고리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늘날과 반대인 왼쪽으로 매여 있다.

- ⑤ 고대부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실내에서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방한용이 아님). 소매가 넓고 길이가 긴 중국식의 형태로 한나라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8. 다음은 중국 역사 교과서의 발해 관련 내용이다. 이러한 중국측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당 현종이 그 곳에 주(州)를 설치하고 그 수령을 도독(都督)으로 삼고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책봉하였다. 이로부터 속말말갈(粟末靺鞨) 정권을 '발해'라고 칭했다.
- 중국 역사 7년급 하책(의무 교육 과정 표준 실험 교과서, 2005) -

< 보기 >

ㄱ. 7세기 말에 대조영이 속말말갈의 각 부족을 통일하여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진국왕(震國王)이라 일컬었다.
 ㄴ. 대조영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대무예가 왕위에 올라 무왕이 되고 연호를 인안(仁安)이라 하니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다.
 ㄷ. 발해에 거주하던 한족(漢族)과 다른 민족들은 중국과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경제·문화의 수준이 높아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일컬었다.
 ㄹ. 당나라가 9세기 전반에 빈공과(賓貢科)를 설치하자, 발해 학생들이 이에 응시하여 여러 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발해의 중국에 대한 주체성(동북공정 반박)

제시된 자료는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발해사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보지 않고, 말갈 정권으로 파악하고,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여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발해는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계승하였으며 고려 국왕임을 표방한 점과, 당에 대한 조공과 책봉은 외교 행위를 한 것 뿐이며, 황제를 자칭하였고, 거의 모든 왕들이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였음을 통해서 자주국임을 알 수 있다.

㉠ 자료의 내용만 보면 제 3자가 보기에 대조영은 우리 민족이 아닌 속말 말갈의 왕으로 보여질 수 있다.

㉡ 연호를 사용함은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보여준다.

㉢ 중국과의 교류 정도 속에서 문화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주체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 당의 빈공과 과거 시험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이므로 이는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제 3국으로 보고 있음을 반증한다.

9. 다음 비석들의 공통점을 옳게 지적한 것은? [1점]



- ①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세웠다.
- ② 신라와 고구려의 동맹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당시에 불교가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삼국 시대 귀족들의 도교적 생활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한반도에 유학이 전래되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 삼국의 한강 유역 쟁탈 과정에서의 기념비

중원고구려비: 장수왕 69년(481)경에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기념하여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423년 설도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단양 적성비: 진흥왕 때인 551년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적성 점령에 대한 포상과 그 지역에 대한 대민 회유의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이를 통해 신라가 한강 상류까지 장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산비: 진흥왕 때인 568년 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순행비로 신라가 한강 하류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무학대사의 비로 알려졌다가 김정희의 고증에 의해 사실이 알려졌다.

② 신라와 고구려와의 동맹 관계는 중원고구려비 하나만 해당되며, 광개토태왕릉 비문의 내용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③ 이들 비문에 불교적인 내용은 없다

④ 도교와 관련 있는 유물, 유적으로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백제의 금동대향로, 산수무늬 벽돌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문으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백제의 사택지적비가 있다.

⑤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0. 연표의 (가)~(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시기에 관동 조직이 마련되었다.
- ② (나) 시기에 대체로 무열왕의 직계손들이 왕이 되었다.
- ③ (나) 시기에는 시중의 권력이 상대등보다 강했다.
- ④ (다) 시기에 교육 기관으로서 국학이 설립되었다.
- ⑤ (다) 시기에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정답: ④

* 신라 연표와 상.중.하대의 특징

마립간 호칭 사용(356, 내물왕)
집사부 설치(651, 진덕여왕)
96각간의 난(768, 혜공왕)
신라 멸망(935, 경순왕)

(가) **내물왕~진덕여왕**: 주로 상대라 볼 수 있고, 내물왕 때에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고 중앙집권의 기초를 이루었고, 법흥왕 때에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을 조직하는 중앙집권을 완성하였다. 진평왕에서 진덕여왕의 시기에는 성골이 왕위를 독점하던 시기이다.

(나) **무열왕~혜공왕**: 중대의 시기이고, 성골 왕통이 끝나고 무열왕계 왕실이 이어지던 시기이다. 왕명을 받들고 기밀 사무를 관장하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기능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던 상대등의 세력을 억제하였다 대체로 삼국을 통일하고 전제 왕권이 확립되어 문화의 황금기를 이룬 시기와 일치한다.

(다) **선덕왕~경순왕**: 하대의 시기이고 왕위 쟁탈전 속에서 무열왕계 왕실이 끊어지고 내물왕계 진골 왕실이 성립되었으며 말기에는 박씨 왕도 재등장할 만큼 왕권이 약화된 시기이다. 중앙 정치의 혼란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호족·해상 세력이 등장하며 멸망에 이르는 시기이다.

① 520년 법흥왕 때에 율령 반포, 관등 조직, 공복 제정을 하여 중앙집권을 완성하였다.

④ 신문왕 대에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⑤ 하대에는 개인적이고 사색적·실천적인 선종이 유행하였고 호족들과 연계되었다

11. 다음은 어느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기에 적힌 내용이다. 이 유물을 사용한 주인공의 행적을 추측한 것으로 합당한 것은? [1점]



- ① 경당의 청소년들에게 유학을 강의하였다.
- ② 담로 책임자로 임명받아 임지로 출발하였다.
- ③ 독서삼품과에 응시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 ④ 중정대에 출근하여 관리들의 부정을 조사하였다.
- ⑤ 거란과의 강동 6주 문제를 도당에서 논의하였다.

정답: ③

* 통일 신라 시대 상류층의 생활상

안압지 출토 주사위(酒令具): 8세기 통일 신라 시대로 추정되며 당시 상류층의 음주 놀이 문화를 알 수 있다.

통일이 되면서 왕실과 귀족은 이전보다 풍족한 경제 기반을 가졌다. 왕실은 삼국의 경쟁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국가의 수입 중 일부를 왕실의 수입으로 삼았다.

귀족은 식읍과 녹읍을 통하여 그 지역의 농민을 지배하여 조세와 공물을 거두었고,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귀족은 국가에서 준 토지와 곡물 이외에 물려받은 토지, 노비, 목장, 섬도 가지고 있었다. 서민을 상대로 한 고리대업도 수입원의 하나였다. 귀족은 당이나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비단, 양탄자, 유리그릇, 귀금속 등 사치품을 사용하였다. 당시 귀족은 당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을 정도였으며, 경주 근처에 호화스러운 별장을 짓고 살았다.

- ① **경당:** 고구려의 지방 민간 교육기관, 서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술도 학습하였다.
- ② **담로:** 백제 무령왕 때 설치한 특수행정기구, 총 22개이며 왕족을 파견하였다.
- ③ **독서 삼품과:** 통일 신라 원성왕 때 설치한 관리 임용 제도의 하나로 유교적 독서 소양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임용하였으나 골품 귀족 사회의 한계로 실패하였다.
- ④ **중정대:** 발해의 감찰 기구.
- ⑤ **강동 6주:** 거란의 1차 침입(993, 고려 성종 때) 당시 서희의 외교로 확보한 지역.

12. 다음 시(詩)가 쓰여진 시대에 세워진 사찰 건축물은? [2 점]

제망매가 월명사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으며 두려워지고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다 못하고 가 버렸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남아 가지고
 가는 곳 모르누나,
 아아, 미타찰에서 만나 볼 나는
 도 님으며 기다리리라.



정답: ②

* 통일 신라 시기의 건축물

출전: 제망매가는 통일신라시기의 승려 월명사(8C 중반 경덕왕 때 승려)가 지은 대표적인 향가이다.

통일 신라의 궁궐과 가옥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불교가 융성함에 따라 사원을 많이 축조했는데, 그 중에서 8세기 중엽에 세운 불국사와 석굴암이 통일 신라의 사원 건축을 대표한다.

① **익산 미륵사지 5층 석탑:** 백제 무왕의 재위기간 중인 639년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백제 석탑의 소위 시원 형식이라고 불리며, 여러 면에서 한국 석탑 전체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또한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는데 목탑의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③ **보은 법주사 팔상전:** 17세기의 건축으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④ **예산 수덕사 대웅전:** 13세기 이후의 고려의 배흘림 주심포 양식으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함께 대표적인 건물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을 보이는 목조건축이다.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1308).

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 18호로 지정된 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건물이다. 부석사의 본전으로서 676년(신라 문무왕 16)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으나 1916년의 해체, 수리 때 발견된 목서명(墨書銘)에 의하면 1376년(고려 우왕 2) 중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3. 다음 글에 나타난 역사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동명왕의 일은 변화가 신이(神異)해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처음 일으킨 신성한 자취이니, 이것을 서술하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장차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노니, 우리 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고장임을 천하에 알리려 함이다.

— <보기> —

- ㄱ. 우리의 고대사를 중국이 아닌 하늘(天)과 직결시키고자 하였다.
- 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민족 공동의 시조를 찾아 극복하려고 하였다.
- ㄷ. 민간의 전승 설화를 서사시로 엮어 자주적 국가 의식을 강조하였다.
- ㄹ. 고구려와 신라를 이어받았다는 이중적인 계승 의식이 유지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 고려 후기 몽고의 침입 당시의 역사관(13세기, 민족적·자주적):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중 동명왕편:**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천제의 자손인 고구려 건국의 영웅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그의 문집 <동국이상국집>(1241)에 실려 있는데, 많은 시 중에서도 특히 서사시 <동명왕편>은 오언 282구에 이르는 장편으로서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민간의 전승 고구려 건국 신화를 웅장하게 서술하였고, 구삼국사(舊三國史)의 존재와 내용 일부, 팔만대장경의 판각 연혁, 금속활자의 사용 사실(상정고금예문) 등 귀중한 역사 사실도 많이 실려 있다.

- ㉠ 동명왕편에는 천손 사상이 나와 있다(동명왕이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
- ㉡ 몽고의 침입 당시의 위기 상황은 맞지만 민족의 공동 시조인 단군에서 찾지는 않고 고구려 동명왕에서 찾고 있다
- ㉢ 주몽 설화를 서사시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자주성을 볼 수 있다
- ㉣ 고구려 계승 의식만 볼 수 있다.

14. 다음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에서 어떤 지방 행정 기구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림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가. 묘청의 난 이후에도 독립적인 행정 체계를 갖고 있었다.
 나. 개경의 중앙 정부와 유사한 기구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다. 삼경(三京)에 설치하여 군·현의 상급 행정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위총의 난 이후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서 토관직(土官職)으로 격하되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④

* 고려의 분사제도

서경은 고조선·고구려의 구도(舊都)로서 군사적 요지인 동시에 유서 깊은 문화 도시였으나, 고려 건국 초기에는 크게 황폐되어 인구가 적고 토착 세력도 거의 없어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하기에 적합한 데다가, 신라 말기의 도선의 풍수지리설을 태조가 숭상하게 되어 그 영향으로 서경에 개경의 관아를 모방하여 분사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른 서경으로의 사민(徙民), 이궁(離宮)의 건설 등으로 서경은 개경과 규모가 거의 같은 도시로 발전하였다. 이 제도는 922년(태조 5)~1116년(예종 11)까지 거의 2세기에 걸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태조 이래의 서경 중시 정책은 인종 때 이르러 서경 천도운동과, 이로 인하여 일어난 묘청 반란의 한 원인이 되었다.

㉠ 묘청의 난은 서경세력의 몰락을 가져왔고, 그 영향은 이듬해 제도상으로 나타나 유수(留守)·감군(監軍)·분사어사(分司御史) 등 중앙에서 파견한 관원 외의 이전 직제는 모두 없애고 문종 때 서경 관하에 두었던 경기 4도도 해체하였다

㉡ 분사는 삼경(개경, 서경, 동경(->남경)) 중에서 서경에만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있고 군, 현의 상급기구인 5도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하다

㉢ 서경은 무신 정권기에 조위총(서경유수)의 난이 일어난 지역이고, 이 후 서경의 독립성은 상실되고 그 지위는 하락됨으로써 오랫동안 개경 정부와 대등했던 서경의 행정기구는 토관직으로 변모되었다.

15. 다음은 고려 말 조준의 전체 개혁 상소문 중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6도 관찰사가 보고한 경작지는 50만결이 채 안 됩니다. 공상(供上)의 몫으로 우창에 10만결, 사고에 3만결을 소속시켰고, 녹봉 지급을 위해 10만결을 좌창에 소속시켰습니다. 선비를 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경기의 토지 10만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토지가 17만결뿐입니다. 6도의 군사, 진, 원, 역, 사의 토지와 향리, 사괘, 늪급, 아록의 쓰임에도 부족하여, 군수(軍需)에 지출할 토지가 없습니다.

- ① 우창, 사고에 소속된 13만 결은 민전이다.
- ② 선비들에게 지급된 10만 결은 수조권이 지급된 것이다.
- ③ 정부의 재정비로 사용된 것은 우창에 속한 10만 결이다.
- ④ 우창과 좌창에 속한 20만 결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전이다.
- ⑤ 나머지 토지 17만 결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 개인이나 기관에 지급하였다.

정답: ⑤

* 과전법 제정 당시인 고려 말의 토지 상황 (1391)

고려시대의 토지체계, 재정운영 체계의 특징은 국가에 조세를 내는 토지인 공전(公田)과 조세가 개인이나 각 기관에 귀속되는 사전(私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재정과 경제 운영은 바로 이들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려시대의 특징적 토지제도인 전시과 제도는 위의 토지 가운데 사전에 해당하는 토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여기서 사전은 수조권이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세입위임지(歲入委任地)라 하며, 이에 비해 공전은 수조권이 국가에 있었으므로 국가세입지(國家歲入地)라고 한다.

국가세입지로부터 들어온 조세는 좌창과 우창에서 관리하였다. 우창에 소속된 10만결의 토지의 조세는 주로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경비에 사용되었고 일반 관리들의 녹봉(祿俸)은 좌창에 소속된 토지의 조세로서 충당되었다. 이러한 국가세입지, 즉 공전의 토대는 주로 민전(民田)이었는데, 관리들의 개인 소유지도 포함되지만 일반 민의 소유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전이라 하였다. 이러한 국가세입지는 전체 토지의 4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즉 사전인 세입위임지의 운영 방식에 고려시대 재정운영과 경제구조의 특징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사전 17만결은 수조권이 개인이나 기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세입위임지(歲入委任地)이므로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다.

16. 다음 한시를 지은 인물의 출신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문구는? [2점]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① 왕후장상이 본래 씨가 따로 있느냐.
- ②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이다.
- ③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④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 ⑤ 사나이 스무 살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할 것인가.

정답: ②

* 정지상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이 시는 이별의 정한(情恨)을 담은 정지상의 ‘송인(送人)’이라는 한시이고, 묘청의 난 중 서경과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후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일천년대 제일대사건’(북진정책 좌절)으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① **만적의 난**: 노비 신분 해방 운동의 봉기 중에서 “王侯將相 寧有種乎?”

③ **정몽주**: 온건파 사대부, 단심가 중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與之”

④ **윤봉길**: “丈夫出家生不還”

⑤ **남이** 장군: “白頭山石磨刀盡, 豆滿江水飲馬無, 男兒二十未平國, 後世誰稱大丈夫”

17. 다음 글에 보이는 관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점]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 ① 채하중을 첨의정승으로 삼았는데, 감찰사에서 채하중의 직첩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달 만에야 서명하였다. (공민왕 3년 6월)
- ② 왕이 수가(隨駕) 군사에게 미리 녹을 지급하도록 명하자 어사가 이를 반박하니 왕이 노하여 어사를 순군소에 가두었다. (충렬왕 13년 4월)
- ③ 현납 원송수와 광충수가 찬성사 정천기는 고신(告身)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정방에서 인물을 평정한다고 탄핵하였다. (충목왕 4년 8월)
- ④ 기거랑 윤언이, 좌사간 정지상, 우정언 권적 등이 글을 올려 당면 정책의 옳고 그른 데 대하여 진술하니 왕이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인종 7년 5월)
- ⑤ 아버지를 위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형조에서 곤장 80대로 결정하였다. 도당(都堂)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였으나 왕이 용서하였다. (공양왕 3년 5월)

정답: ⑤

* 고려 어사대, 낭사의 역할: 대간 기능(감찰, 간쟁, 서경, 봉박의 언론, 비판 기능)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즉 대간은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⑤ 도당(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본래 도병마사는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인 귀족회의로서 국방문제와 같은 국가 중요문제를 논의하였다(재추 회의).

그러나 고려 후기 무신정변 이후에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 양부의 재추 전원으로 구성되고 군사적 문제뿐 아니라 민사적 문제까지도 관장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불리게 되었다. 도당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제 도병마사가 재추로 구성된 중앙의 최고기구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상설기구).

이러한 변화는 원의 간섭기 이후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칭되며(1279), 그 구성원에서 재추의 수가 증가하고 직접 직사자가 아닌 재추 상의와 삼사까지 포함하여 70~80명으로 구성되는, 즉 중서문하성(재상부와 언간부), 중추원(추부와 승선부), 재정 삼사로 확대되어 귀족 연합 정치의 성격을 띠며 왕권을 제한하였다.

18.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던 고려 시대 관료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 [3점]

- 수령의 잘잘못을 살펴 포상하거나 내쫓았다.
- 민생의 고통을 두루 묻고 농업과 양잠을 권장한다.
- 형벌과 송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피고 형옥을 다스린다.
- 공부와 방물을 수납하여 개경으로 수송하는 일을 관장한다.

- ① 군사를 통솔하는 군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 ② 출신 지역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 ③ 임기는 2년이었으며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 ④ 대부분 3품 이상의 고위 관료 중에서 차출하였다.
- ⑤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을 통치하던 최고의 외관이다.

정답: ①

* 고려의 지방 장관 안찰사

안찰사: 5도 양계 중 5도(일반 행정 구역)의 장관이다. 주된 일은 각 도의 주현을 순안(巡按)하면서 수령의 현부(賢否)를 살펴 출척(黜陟)하는 일, 민생의 질고(疾苦)를 묻는 일, 형옥의 심치(審治), 조부(租賦)의 수납, 군사적 기능 등을 맡았다.

그러나 도의 장관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는데, 외직이 아니고 경직이라 시무 기구도 없고, 5~6품의 미관직이며, 춘추로 6개월의 짧은 임기 때문이다.

② 조선의 관찰사와 기능이 유사하나 상피제는 없음

⑤ 안찰사는 주현의 수령을 통할하여 중앙 정부와 연결하는 중간 기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 행정관이면서도 그 관품이 보통 5품 내지 6품으로 낮았고, 전임관이 아니라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했으며, 또한 6개월 만에 교대하므로 임기가 짧았으므로 최고의 외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고려 때에는 주현(主縣)과 속현(屬縣) 제도로 지방을 통제하였는데, 주현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대읍(大邑)의 수령을 계수관이라고 하였으며, 여러 속현을 관장하면서 지방행정의 실제적인 중심단위로서 간접적으로 중앙정부와 연결되었다.

19. 다음은 단종·세조대 의정부와 6조의 정치 활동 빈도를 비교한 표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단종대		세조대	
	의정부	6조	의정부	6조
啓聞 (국정의 상달)	435회	37회	164회	985회
受教 (왕명의 奉行)	2회	127회	77회	717회
擬議 (국정의 논의)	303회	10회	442회	135회
計	740회	174회	683회	1837회

- ① 세조대에는 6조에서 직접 국왕에게 계달하였고, 국왕은 6조에 왕명을 내려 시행하였다.
- ② 세조가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직후부터 6조의 정치력은 강화되고 의정부의 정치력은 약화되었다.
- ③ 단종과 세조대 모두 국정 논의의 중심은 의정부였지만, 세조대에 6조의 국정 논의 참여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 ④ 단종대에는 국정의 논의와 계문을 의정부에서 독점하였고, 6조는 전교와 왕명으로 내려진 결정에 따라 행하였다.
- ⑤ 세조대에 6조에 집중된 정치적 기능은 국왕권을 제한하고,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⑤

* 조선 초기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

• 세종 때에 6조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에서 논의한 다음, 합의된 사항을 국왕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인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 체제를 바꿔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고, 훌륭한 재상들을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김종서, 황보인 등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 수양 대군으로서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른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치 체제를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로 고쳤다.

의정부서사제: 재상 중심 왕권 약화	세종~단종
6조직계제: 의정부 무력화 왕권 강화	태종, 세조

⑤ 세조 때에 6조직계제를 통하여 6조의 권한이 의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이지 왕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세조는 자신의 활동을 견제하는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도 열지 않았으며, 태종 이후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던 종친들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20. 다음은 우리 나라 음악의 발달과 관련된 서술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2점]

- (가) 거문고와 가야금이라는 고유의 현악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음악 문화가 발전하였다.
- (나) 새로이 외래 음악인 당악(唐樂)을 받아들여 전래 음악인 향악(鄕樂)과 당악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었다.
- (다)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음악을 중요시하였으며, 악곡과 악보가 정리되어 전통 음악을 유지하였다.
- (라) 궁중의 의식 음악이 위축되고 남녀상열지사를 노래한 속악(俗樂)이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 (마) 오늘날 한국 전통 음악의 대표적 위치를 차지하는 판소리와 산조 등이 발전하였다.

- ① (가) — (나) — (라) — (다) — (마)
- ② (가) — (다) — (나) — (마) — (라)
- ③ (가) — (라) — (나) — (다) — (마)
- ④ (나) — (가) — (다) — (라) — (마)
- ⑤ (나) — (가) — (다) — (마) — (라)

정답: ①

* 역대 음악의 발달

(가) 삼국의 음악가로는 신라의 백결 선생,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의 우륵이 유명하다.

백결 선생은 방아타령을 지어 가난한 아내를 위로했고, 왕산악은 진의 칠현금을 개량하여 거문고를 만들고 악곡을 지었다. 우륵은 가야금을 만들고 12 악곡을 지었는데, 이것이 신라에 전해져 우리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 속악이라고도 하는 향악은 우리의 고유 음악이 당악(고려 초기에 도입)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것인데, 당시 유행한 민중의 속요와 어울려 수많은 곡을 낳았다. 동동, 한림별곡, 대동강 등의 곡이 유명하였다. 악기는 전래의 우리 악기에 송의 악기가 수입되어 약 40 종이 나 되었다고 한다.

(다) 조선 시대에는 음악을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국가의 각종 의례와 밀접히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요시하였다. 세종은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 하거나 만들게 하였고, 스스로 여민락 등 악곡을 짓고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아울러 악곡과 악보를 정리하게 하고 아악을 체계화함으로써 아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라) 고려 후기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속악인 남녀상열지사가 유행하였다. 작품으로는 쌍화점, 이상곡, 만전춘 등이 있다.

(마) 조선 후기에는 음악에 있어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음악의 향유층이 확대됨에 따라, 성격이 다른 음악이 다양하게 나타나 발전하였다. 양반층은 종래의 가곡, 시조를 애창하였고, 서민은 민요를 즐겨 불렀다. 이와 함께 상업의 성황으로 직업적인 광대나 기생이 판소리, 산조와 잡가 등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음악은 전반적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21. 다음은 조선 태종 때 어느 농촌에서 관리와 농민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가상으로 꾸민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2점]



- ① (가) 이제 매년 수확량의 절반을 내게 바치게.
(나) 그럼 종자는 부담해 주시는 것이지요?
- ② (가) 이제 매년 수확량의 절반을 관청에 바치게.
(나) 그럼 나리께는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 ③ (가) 이제 매년 내게 수확량의 1/10씩 바치도록 하게.
(나) 더 내라 하시지 않겠지요?
- ④ (가) 이 땅을 팔려고 하니 새 주인과 잘 지내게.
(나) 그럼 제 신분은 노비가 되는 것입니까?
- ⑤ (가) 이 곳은 토지가 비옥한 상상등전이군.
(나) 그럼 매년 20두씩 바쳐야 합니까?

정답: ③

* 조선의 토지 제도 과전과 민전

(가) **과전**: 모든 문무 관료에게 주어진 수조권 지급 토지

(나) **민전**: 개인의 사유지로 매매.상속.증여가 가능. 그러나 과전이 선포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수조권자인 관료에게 1/10에게 조를 지급해야한다.

① 병작반수(1/2 수조)는 과전이 아닌 사전에 적용된다.

② 과전은 농민이 국가에 1/2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자(관료)에게 1/10을 바치는 것이다

④ 과전의 대상지인 민전의 소유권은 소유 농민(전객)에게 귀속되지만 1/10의 조를 수조권을 갖은 관리(전객)에게 바쳐야 한다.

⑤ ‘상상등전’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분 6등법이고,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은 세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

22. 다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사극으로 제작할 때에 주 무대가 되는 밑줄 친 '이 곳'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2점]

- ① 고려 고종 19년(1232) 최우는 몽고와의 항쟁을 결의하고 이 곳으로 서울을 옮겼다.
- ② 몽고와의 강화에 반대한 배중손 등은 반란을 일으켜, 이 곳을 중심으로 부근의 여러 섬과 해안 일대를 지배하였다.
- ③ 인조 14년(1636)에 청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왕자와 비빈은 이 곳으로 먼저 피난하였으나 인조는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④ 양명학의 학문적 체계를 수립한 정제두는 이 곳에서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여 이광사 등 많은 제자를 길러 냈다.
- ⑤ 고종 3년(1866) 프랑스의 해군 제독 로즈는 이 곳에 군대를 파견하여 군기, 서적 등을 약탈하고 서울을 향해 진군하다가 우리 군대에게 패퇴하였다.

정답: ②

* 강화도 지역의 역사

① 몽골의 2차 침입(1232) 당시 무신 정권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난시킨 뒤 항전과 외교를 병행하면서 저항하였다

②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1270),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배중손의 지휘 아래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장기 항전을 계획하고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③ 병자호란(1636) 일어나자 왕자.비빈은 강화도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④ 18세기 초에 정제두는 몇몇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 학파). 그는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인정하였으며, 양반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이었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되었다.

⑤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절 일어난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는 모두 프랑스와 미국이 강화도로 침공해왔으며, 격전지인 정족산성, 광성보 등은 모두 강화도에 소재하고 있다.

23. 다음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주제로 방송 대본을 작성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2점]

번호	제목	대본 요약 내용
①	신문고를 쳐라	태종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던 갑들이는 궁궐 앞에 매달아 놓은 신문고를 치려고 미친 듯이 달려갔으나, 걸차를 무시했다며 수비병들에게 오히려 쫓겨나고 말았다.
②	신참의 비애	선조 때 문과에 급제했던 이판서는 처음 배속받은 관청 선배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견디다 못해 소까지 잡아 여러 차례 잔치를 벌인 후에야 정상 근무를 할 수 있었다.
③	원동했던 들쇠	세종 때 안성 땅에 살았던 들쇠는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키는 안성 군수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경기 감영에 고발한 후에야 고을이 안정을 되찾았다.
④	처가살이	세종 때 전라도 부안 땅 양반 이철성은 무남독녀의 집으로 장가를 가 처가살이를 17년 간이나 한 후 그 많은 재산을 혼자서 물려받고 거부가 되었다.
⑤	김생원의 죽음	성종 때 안동 땅에 살았던 김생원이 죽자, 그의 자녀 3남 4녀가 함께 의논하여 재산을 고루 나눠 가진 후, 제사도 아들 딸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지내고 있었다.

정답: ③

* 조선 전기 사회상(민원·상소 제도, 여성의 지위와 상속 제도 등)

신문고: 조선 초기에 상소·고발하는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최후의 항고(抗告)·직접고발 시설의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하여,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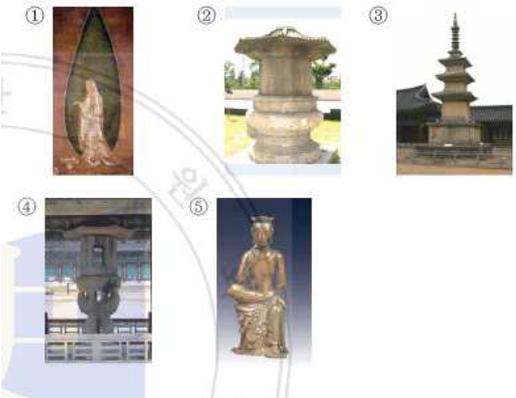
이 제도는 조선에서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올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吏胥)·복레(僕隸)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 다거나, 품관(品官)·향리(鄉吏)·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사주(使囑)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② 조선 시대 신참 관원이 선배 관원들 앞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호된 통과의례로 면신례(免新禮)라 하였다.

④, ⑤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경우가 많았다. 집안의 대를 잇는 자식에게 5분의 1의 상속분을 더 준다는 것 외에는 모든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재산 상속을 같이 나누어 받는 만큼 그 의무인 제사도 형제가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책임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24. 다음 글에 나타난 불교계의 새로운 동향과 관련하여 사찰에 새로이 등장한 것은? [1점]

당나라 장경(長慶) 연간에 승려 도의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서당대사의 깊은 뜻을 보고 지혜의 빛이 스승과 비슷해져서 돌아왔으니, 그는 그윽한 이치를 처음 전한 사람이다. …… 그러나 메추라기의 작은 날개를 자랑하는 무리들이 대붕(大鵬)이 남쪽으로 가려는 높은 뜻을 헐뜯고 기왕에 공부했던 경전 외우는 데만 마음이 쏠려 다투어 마귀의 말과 같다고 비웃으니, 도의는 빛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서울에 갈 생각을 버리고 마침내 북산에 은거하였다.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



정답: ②

- * 신라 하대 선종의 유행: 부도(승탑) 유행
- 힌트: 경전 몰두 비판 -> 선종(개인적 사색, 실천 중시)
- 신라 말에는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종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다.

당에서 도의의 귀국(821)으로 선종이 도입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예: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연곡사 동부도 등)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이 시기의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 이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 ①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관음보살도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 ②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신라 말: 문성왕, 844년)
- ③ 통일신라 시대에 건축된 불국사 3층 석탑(신라 중대: 경덕왕)은 복잡하고 단순한 좌우 누각의 비대칭은 간소하고 날씬하다
- ④ 불국사 석등과 법주사 쌍사자 석등(신라 중대: 성덕왕)은 단아하면서도 균형잡힌 걸작으로 꼽힌다.
- ⑤ 삼국 시대에는 미륵보살 반가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 중에서도 탑 모양의 관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국보 78호)과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국보 83호)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후자는 일본의 세계적 자랑인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25. 다음 (가)~(마) 시기의 정치 동향에 대해 역사 신문을 제작하려고 할 때, 기사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구분	(가)	(나)	(다)	(라)	(마)			
시기	선조	광해군	인조~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철종
붕당 정치의 전개	서인		남인		노론			소론
	동인	북인	대북	소북				

	시기	기사 제목
①	(가)	정계 개편 완료 - 김효원은 동쪽, 심의겸은 서쪽
②	(나)	서인의 반정 - 의리와 명분이 병자호란을 초래하다!
③	(다)	잡은 정국 변환 - 왕이 정략적으로 환국을 이용한다는 비난도 있어.
④	(라)	정계 갈등 고조 - 장례 예법을 둘러싸고 정국 경색
⑤	(마)	안동 김씨 세도 -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정치 동향 (붕당 정치의 전개)

(가) 선조~광해군 (동서 붕당과 북인 집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나) 인조~현종 (서인과 남인의 정쟁)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다) 숙종~경종 (환국정치와 소론 집권)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종 때에는 서인 중 온건파인 소론이 일시 집권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았다.

(라) 영조~정조 (탕평 시기: 정치적 균형)

영조의 완론 탕평(but, 노론 중심), 정조의 준론 탕평(but, 노론 시파, 남인 등 소외 세력 중용) 등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집권과 붕당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생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마) 세도 정치: 순조~철종

영.정조 대의 강력한 왕권에 의해 무너진 붕당의 공백을 오히려 외척 등 세도 가문이 흡수하고 왕권이 약화되고, 민생이 크게 흔들렸다.

④ 장례 예법 등의 전례문제를 놓고 정쟁을 벌인 것은 예송 논쟁이다.

26. 다음과 같은 문화적 경향을 조사하기 위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점]

- 조선 후기 사회·경제 변동에 따라 사회적 모순이 나타났다. 기존 성리학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새로운 사상 기운이 나타났다.
-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로 문화에도 새로운 기운이 나타났다. 양반층 외에도 중인층과 서민층 참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독자적인 우리 고유의 것을 찾는 경향이 나타났다.

- ① 자영농의 육성을 목표로 제시된 개혁안을 조사한다.
- ② 발해 관련 서적들이 언제부터 편찬되기 시작했는지를 조사한다.
- ③ 각종 한글 소설들을 찾아 내용과 담고 있는 의미를 비교, 분석한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통해 그림의 의미는 물론 생활 풍속까지 조사한다.
- ⑤ 담백하고 고상함이 배어나는 순백의 백자를 통해 사대부들의 정신 세계를 알아본다.

정답: ⑤

* 조선 후기의 문화적 경향: 실학과 서민문화의 발전

• 18세기 전반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들은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 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구 하였다. 이 실학자들을 경세치용 학파라고도 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민 생활의 안정(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 조선 후기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문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한글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은 서열에 대한 차별의 철폐, 탐관오리의 응징을 통한 이상 사회의 건설을 묘사하는 등 당시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 꼽히는 춘향전은 신분 차별의 비합리성을 나타내었다. 이 밖에도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못된 용왕을 골려 주는 토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왕비가 된 심청, 불합리한 가족 관계에서 희생된 장화·홍련 등의 이야기를 통하여 서민은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 조선 후기 그림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새 경향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이었다. 진경 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룩하였으며,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어 회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⑤ 순수 백자는 조선 중기(16세기) 발달하였는데,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선비의 취향과 어울렸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었다

27. 다음은 외국인에게 경복궁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조선 왕조는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5대 궁궐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법궁이 바로 이 경복궁이고, 나머지는 (가)의 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경복궁의 정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큰 건물은 바로 왕의 즉위식이나 책봉 등 국가적 의례가 있을 때에 사용하였고, 그 뒤에 (다)왕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임금이 거처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왕세자는 동쪽에 있어 동궁이라 하였고, (라)왕비의 거처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 < 보 기 > —
 가. (가)는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을 말한다.
 나. (나)는 광화문을 가리키며, 좌측에 종묘, 우측에 사직이 배치되었다.
 다. (다)는 근정전을 말한다.
 라. (라)는 교태전으로, 임금이 거처하는 공간의 서쪽에 배치되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정답: ①

* 조선의 정궁과 이궁 등

조선 시대의 궁궐은 크게 정궁, 이궁, 행궁, 별관으로 나뉜다.

1. 정궁: 정궁은 수도 중앙의 기본궁으로 경복궁이 당시의 정궁에 해당한다.
2. 이궁: 이궁은 별궁의 기능을 수행하는 궁으로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등이었다.
3. 행궁: 행궁은 왕이 거동하실 때 일정기간씩 머무는 지방에 있는 궁으로 수원 행궁, 남한산성 행궁, 북한산성 행궁, 강화도 행궁, 평양 행궁 등
4. 별관: 별관은 지방에 행차할 때 왕실에서 임시로 이용하는 건물로 충주 별관, 이주 별관, 나주 별관이 이에 해당한다.

궁궐은 국가 최고의 상징적 건물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과 기술을 투자해서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짓게 되며 돌하나, 나무 하나에도 지극한 정성을 들여 다듬고 쌓아 올렸다.

- ㉠ 정문 광화문과 좌우에 종묘·사직이 있다
- ㉡ 근정전은 왕과 신하의 집전실이다
- ㉢ 교태전은 경복궁 중앙에 있음(중전), 왕비의 침전

<그 외 경복궁 내 주요 건물>
 강녕전: 경복궁 안에 있던 왕의 침전
 경회루: 외국 사신의 접대와 연회를 베풀던 곳
 사정전: 정전(正殿)인 근정전 뒤에 있는 편전(便殿)으로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정사를 보던 건물(집무실)

28. 그림은 조선 시대 일반적인 양반 주택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하인들의 기거는 대문 근처에 두었다.
- ②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 ③ 양반들의 개방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④ 성리학적 기본 윤리인 내외법을 주택에서도 찾을 수 있다.
- ⑤ 때때로 안채와 사랑채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들이 남자에게 시중들기 편하도록 한 것이다.

정답: ③

* 양반의 가옥 구조

안채: 집안의 주인마님을 비롯한 여성들의 공간으로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

사랑채: 외부로부터 온 손님들에게 숙식을 대접, 이웃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집안 어른이 어린 자녀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교육하는 장소

사당자리: 중상류의 주택에는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 뒤쪽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이라는 의례 공간을 마련

행랑채: 하인들이 기거하거나 곡식 등을 저장해두는 창고. 대문간 옆에 있다.

별당자리: 규모가 있는 집안의 가옥에는 별당이 집의 뒤, 안채의 뒷쪽에 자리. 결혼전의 딸들이 기거하는 별당은 "초당"으로 불리웠으며 또한 결혼전의 남자 아이들의 글공부를 위해 "서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집도 있었다.

② 사당이 그 예이다

③ 담장으로 둘러싸여있고 내부에도 구획이 되어있어 폐쇄적

④ 성리학적 기본윤리는 여자는 안, 남자는 바깥이고 집도 그러한 구조이다

⑤ 안채의 아녀자들이 사랑채의 남자 손님 접대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29. 다음 기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지방에서 토산물을 공물로 바칠 때, (중앙 관청의 서리가) 공납을 일체 막고 본래 값의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백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선조실록>

- ① 공물을 현물 대신 쌀로 징수하였다.
- ② 일부 지역에서는 포나 돈으로 징수하였다.
- ③ 공물을 필요한 해당 관청에서 징수하게 하였다.
- ④ 과세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 ⑤ 공방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공인을 지정하였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대동법(방납의 폐단 해결, 공납의 전세화)

대동법 하에서는 공물을 각종 현물 대신 미곡으로 통일하여 징수, 과세의 기준도 종전의 가호(家戶)에서 토지의 결수로 바꾸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 당 쌀 12두(斗)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공납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고, 무전농민이나 영세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제외되었다. 대동세는 쌀로만 징수하지 않고 운반의 편의를 위해서나 쌀의 생산이 부족한 고을을 위해 포(布)나 전(錢)으로 대신 징수하기도 했다

전담기관으로서 선혜청(宣惠廳)이 신설되었고,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중에 따라 공인들에게 공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각 공방과 관청에 공급했다(→ 선혜청). 따라서 공물의 조달은 선혜청으로 일원화되었다

대동법의 시행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임란 이후 파국에 이른 재정난을 일정하게 타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인들의 활동에 의해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었다

③ 대동미(세) 징수를 선혜청으로 일원화하였다.

30. 다음 글이 묘사하고 있는 시기의 사회 문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2점]

눈같이 흰 목화송이, 산호같이 아름다운 고추 열매, 지붕에 널었으니 가을별이 맑고 밝다. 안팎의 마당을 닦아 놓고 발채와 웅구를 마련하소. 목화 따는 다래끼에 수수 이삭과 콩가지도 담고, 나무꾼 돌아올 때 머루, 다래와 같은 산과일도 따 오리라. 뒷동산의 밤과 대추에 아이들은 신이 난다. 알밤을 모아 말려서 필요한 때에 쓸 수 있게 하소.

- ① 패관 문학이 유행하였다.
- ② 청화 백자와 각종 문방구가 유행하였다.
- ③ 불교계에서 수선사와 백련사가 결성되었다.
- ④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 ⑤ 지배층을 중심으로 호복과 변발이 유행하였다.

* 조선 후기 문화 현상: '고추'는 조선 후기에 들어옴

① 고려 후기에는 수필 형식의 패관문학이 유행하였다. 과한집(이인로), 보한집(최자), 백운소설(이규보), 역옹패설(이제현)이 대표적이다.

② 조선 후기 자기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청화 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는데, 제기와 문방구 등 생활용품이 많았다. 형태와 문양이 어울려 우리의 독특하고 순수한 세련미를 풍겼다

* 분청사기(조선 초기) -> 순수백자(조선 중기) -> 청화백자(조선 후기)

③ 고려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장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강진 만덕사(백련사)에 근거를 둔 요세의 백련 결사가 유명하다

④ 고려 시대에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⑤ 고려가 원과 강화를 맺은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많아졌고, 문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몽골풍이 유행하여 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다.

정답: ②

31. 다음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회화의 경향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림은? [2점]

- 정통 회화의 조류를 모방하여 생활 공간의 장식 및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되었다. 속화(俗畵)라고도 하는데, 여염집의 병풍, 족자 또는 벽에 붙여졌다.
- 대부분이 그림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무명 화가나 떠돌이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①



②



③



④



⑤



* 조선 후기 민화: ①, ②, ③, ⑤

• 조선 후기에는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 16세기(조선 중기)에는 15세기의 전통을 토대로 다양한 화풍이 발달하였다. 강한 필치의 산수화를 이어 가기도 하고, 선비의 정신 세계를 사군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④ 유덕장의 묵죽도로 추정

유덕장(1694~1774)은 조선 후기의 화가로서, 묵화로 대를 잘 그려 이정·신위와 더불어 조선 3대 묵죽화가로 일컬어진다. 이정의 묵죽화 양식을 이어받은 경향을 보인다

정답: ④

32. 다음 (가)~(다)에 나타난 역사 인식을 옳게 분석한 것은?

[2점]

- (가) 우리 해동에 나라가 생긴 것이 맨 처음에 단군 조선에서 시작하였는데, 그 때는 까마득한 시절이어서 민속이 순박하였다. 기자가 주나라의 봉합을 받아서 8조의 가르침을 시행하니 문물과 예의의 아름다운 것이 실제로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동문선>
- (나) 오늘날의 중국은 대지 가운데에서 한 조각의 땅에 지나지 아니한다. …… 크개는 구주(九州)도 하나의 나라이고, 작개는 초(楚)도 하나의 나라이고, 제(齊)도 하나의 나라이다. <성호사설>
- (다) 예로부터 유학자들은 언제나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의 구분을 엄격히 하며, 중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다 이(夷)라 하는데, 이것은 통할 수 없다. 하늘이 어찌 지역을 가지고 인간을 구별하겠는가? <순암선생문집>

- ① (가)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거부하고 단군조선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② (나)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화이관을 벗어난 새로운 차아 의식을 보여 준다.
- ③ (나)는 중화 문화의 전통이 오직 우리 나라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④ (다)는 화이의 문화적인 차별성을 내세우며 존화(尊華)의 의리를 주장하고 있다.
- ⑤ (다)는 중국 중심의 정통론에 입각하여 우리의 역사적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정답: ②

* 시대별 중국에 대한 역사 인식:

(가) **조선 초기 기자 조선 강조(서거정의 동문선에 나타난 사관):** 조선 초기에는 비록 국호가 조선이고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받들지만, 중국에서 도래하여 조선의 국왕이 되어 예의법도를 전파했다는 기사를 교화지군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후일 주로 존화주의적 성리학자들에게 신봉되었다.

(나) **조선 후기 존화(중화)사상 탈피 경향 (성호 이익의 역사관):** 화이의 차별을 부정하였고, 서양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보고 나서 중국도 대지 중 한 조각 땅이라고 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제자인 안정복에게 이어졌다.

(다) **조선 후기 존화(중화)사상 탈피 경향 (안정복의 역사관):** 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에서 볼 수 있는 경향으로 종래의 중국적 사관에서 벗어나 단군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사의 상한을 올려 잡았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모호하던 사실을 규명하였고, 외적의 침략에 항거한 장수들을 내세워 민족의 활기를 찾으려고 하였다

⑤ 안정복은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견주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을 단군 -> 기자 -> 삼한 -> 삼국(무통시대) -> 통일신라 -> 고려로 체계화하며 독자적 정통론을 주장하고 있다(삼한 정통론).

33. 다음 지역에 대한 쟁점을 탐구하기 위해 선정한 비문으로 적절한 것은? [2 점]



- ① 五月中高麗大王祖王令還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
- ② 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戒我萬年子孫丙寅作辛未立
- ③ 旨查邊至此審視西爲鴨綠東爲土門故於分水嶺上動石爲記
- ④ 甲寅年正月九日奈祗城砂宅智積慊身日之易往慨體月之難
還□金
- ⑤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
□□羅以爲臣民

정답: ③

* 백두산 정계비 내용

청과 조선 사이의 간도를 둘러싼 영유권을 결정한 비문, 주된 내용은 ‘서위압록 동위토문’ 즉 양국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속종: 1712)

① **중원 고구려비** 내용: 고구려 대왕과 신라 매금이 힌트. 고구려와 신라의 왕이 만나 세세토록 형제 관계를 원한다는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을 볼 수 있다.

② **척화비** 내용: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는데 싸우지 않는다면 이는 화해를 주장하는 것이요. 화해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 다라는 내용이다

④ **사택지적비** 내용: 사택지적(砂宅智積)이 힌트. 귀족 사택지적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도교 또는 불교적 시가

⑤ **광개토대왕비문** 중 신묘년(400)의 신라 원군 내용: 백잔(百殘)이 힌트인데 이는 백제잔적(百濟殘敵)이라는 뜻으로 백제를 업신여기는 어구이다. 396년(영락 6) 고구려에 항복하며 영원한 노객 맹세를 했던 백제가 일본(가야 연합)과 화통하여 왜구가 신라를 쳐들어오자 군사 5만을 보내어 무찌르게 했다는 내용이다.

34. 다음은 개항기의 주요 수출입품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교역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 ② 면제품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의 면공업 발전은 큰 타격을 받았다.
- ③ 교역은 주로 공산품을 들여오고 농산물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 ④ 쌀 부족과 쌀값 인상으로 도시와 농촌 하층민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다.
- ⑤ 일본 상인의 무역 주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지주와 상인들이 몰락하였다.

정답: ⑤

* 개항기 무역구조

강화도 조약(1876) 이후 일본 상인은 일확천금을 노리며 조선에 적극 진출하였다. 이들은 조선에서 치외법권, 무관세, 일본 화폐 사용 등의 특권을 누리며 약탈 무역을 행하였다.

개항 초기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부근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다(개항장 10리 이내). 따라서 무역은 개항장의 조선인 객주와 여각, 거간 및 보부상들이 중개하는 거류지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선은 일본 상인으로부터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하고 쌀, 콩, 쇠가죽, 귀금속 등을 수출하였다. 대량 생산된 값싼 면직물이 유입되면서 조선의 면포 수공업자는 물론 가내 부업으로 면포를 생산하던 농민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일본 상인들은 일본에 비해 값싼 조선 쌀을 수입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이들은 조선 농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기도 전에 곡물 대금을 미리 지불하거나(입도선매), 곡물을 담보로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 준 다음 가을에 곡식으로 상환받기도 하였다.

조선의 곡물 수출은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시키고 쌀값을 폭등하게 하였으며, 그 이익은 지주와 부농 및 상인들에게 돌아갔다. 반면에 소농과 도시 빈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35. 다음은 대한 제국 시기 유럽의 한 회의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호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일본인들은 항상 평화를 말하지만 어찌 사람이 기관총구 앞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한국민이 모두 죽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의 독립과 한국민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극동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 <보기> —

- ㄱ. 민족 자결주의 제창에 영향을 받았다.
- ㄴ. 일제의 고문 파견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ㄷ.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의 배경이 되었다.
- ㄹ. 세계 각국 기자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아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⑤

* 헤이그 특사 사건(1907):

고종의 밀명으로 이준, 이위중, 이상설의 비밀특사가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전하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네덜란드의 신문인 W.스테드의 주선으로 한국대표는 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호소할 기회를 얻었다. 이때 러시아어·프랑스어·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젊은 이위중이 세계의 언론인에게 조국의 비통한 실정을 호소한 연설의 전문(全文)은 '한국을 위하여 호소한다'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에 보도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에 특사 가운데 이준은 울분한 나머지 그곳에서 분사(憤死)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차관정치, 군대해산)이 있게 되었다

㉠ 3.1운동(1919)에 대한 설명

㉡ 1차 한일 협약(1904)에 의한 고문 정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을사 조약(1905)이 원인 제공

36.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가의 역사관을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조선이 4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군자의 나라로서 일본에 문화를 파급시켰으며, 일본의 음식, 의복, 궁실과 종교, 학술이 모두 한국에서 간 것으로 일본이 일찍이 스승의 나라로 삼겼으나 현재는 종으로 삼았다.
 <한국통사 서문>

— < 보기 > —
 가. 부여족이 우리 나라 역사를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한국 고대사 발전 과정을 단군조선-부여-고구려 계통으로 파악하였다.
 나. 아와 비아의 투쟁 속에서 역사가 전개된다고 설명하여 항일 독립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다. 역사의 원동력을 '얼'로 파악하여 역사 연구의 최대 목표를 '얼'과 같은 민족 정신의 유지에 두었다.
 라. 과거 만주 지역에 거주했던 여진족 등 여러 북방 민족을 모두 단군의 후예로 보아 북방 민족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켰다.
 마. 국가의 구성 요소를 국혼(國魂)과 국백(國魄)으로 나누어 역사를 민족 정신인 국혼의 전개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마 ④ 다, 라 ⑤ 라, 마

정답: ⑤

* 민족주의 역사가 박은식(1859!1925)

• 애국계몽운동 참여(서북학회)와 언론 활동(황성신문 주필)

• 유교 개혁 주장(유교구신론, 양명학)과 대동교 창건: 대동 사상, 대종교(단군) 심취

• **조선광문회** 활동(1910, 최남선)과 **불함문화론** 주장

• 민족주의 역사관(**국혼** 강조, 일본 침탈의 근현대사 저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임시정부 활동: 제 2대 대통령

㉠ 부여족 중심(고조선->부여->고구려)의 우리 역사 전개 주장(신채호)

㉡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인식(신채호)

㉢ '얼' 강조(정인보)

㉣ 백두산이 중심이 되고 한족(韓族)을 근간으로 형성된 고대문화에 관한 최남선, 박은식의 논설이 불함문화론(弗咸文化)이다. 불함문화권에 속하는 민족은 한족(韓族)·만주족·일본족이라고 주장

㉤ 박은식은 국가나 민족의 흥망은 국혼(國魂)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고, 이 국혼은 바로 역사에 담겨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37. 다음은 어느 영화의 광고지이다. 이 영화가 처음 발표된 해에 있었던 사실은? [2점]



- ① 극예술 연구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가날(한글날)이 선포되었다.
- ③ 신간회와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 ④ 신파 극단인 혁신단이 창단되었다.
- ⑤ 은세계, 치악산 등이 원각사에서 공연되었다.

정답: ②

* 나운규의 아리랑 최초 상연(1926)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이 제작·상영되면서 한국 영화는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아리랑과 같이 항일 의식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영화가 제작되었으나, 1940년 조선 영화령이 발표되면서 영화 예술도 탄압을 받았다.

<1926년의 주요 연표>

영화 ‘아리랑’(나운규)

한용운 ‘님의 침묵’ 발표

6.10 만세 운동(학생+사회주의)

조선어연구회 ‘가가날’ 제정

정우회 선언(좌익의 비타협적 우파 제휴)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축성회(민족 유일당)

조선 민흥회(우파 계열의 유일당 운동)

나석주(의열단, 동.척에 폭탄 투척)

① 극예술연구회 창립(1931):

유치진, 김진섭 등

② 조선어연구회의 가가날 선포(1926):

장지영, 최두선 등

③ 신간회/근우회 창립(1927):

이상재, 안재홍, 김활란 등

④ 신파극단 혁신단 창단(1911):

임성구 주도

⑤ 원각사 공연(1908):

최초 공연-이인직의 ‘은세계’

39. 다음은 일제 강점기의 소작 쟁의에 대한 통계이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1934년 이후의 소작 쟁의에 대하여 추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점]

〈경무국 작성 소작 쟁의 건수 및 참가 인원〉				〈농림국 작성 소작 쟁의 건수 및 참가 인원〉			
연도	건수	참가 인원	쟁의당 인원	연도	건수	참가 인원	쟁의당 인원
1925	11	2,646	240.5	1925	204	4,002	19.6
1926	17	2,118	124.6	1926	198	2,745	13.6
1927	22	3,285	149.3	1927	275	3,973	14.4
1928	30	3,572	119.1	1928	1,590	4,863	3.1
1929	36	2,620	72.8	1929	423	5,419	12.8
1930	93	10,037	107.9	1930	726	13,012	17.9
1931	57	5,486	95.9	1931	676	10,282	15.4
1932	51	2,910	57.1	1932	300	4,687	15.6
1933	66	2,492	37.8	1933	1,975	10,337	5.3
1934	106	4,113	38.8	1934	7,544	22,454	2.9
1935	71	2,795	39.4	1935	25,834	58,019	2.0
1936	56	3,462	61.8	1936	29,975	72,453	2.4
1937	24	2,234	93.1	1937	31,799	77,515	2.4
1938	30	1,338	44.6	1938	22,596	51,535	2.3

- ① 농민들의 소작 쟁의로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되었다.
- ② 일제의 탄압과 회유 아래 대규모 쟁의는 줄어들고 소규모 쟁의는 증가하였다.
- ③ 소규모 쟁의는 일제와 식민지 지주제를 부정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 ④ 농림국의 수치는 따르면, 건수와 참가 인원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쟁의당 인원은 크게 줄었다.
- ⑤ 경무국의 수치는 치안과 관련된 대규모 쟁의를 파악한 것으로 건수와 참가 인원이 줄어들었다.

정답: ①, ③

* 일제 강점기의 소작쟁의

일제의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20년대 산미증식계획 등의 수탈과 식민지 지주제의 심화로 다수의 소작 농민들은 20년대부터 소작료 인하, 관습적 경작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의 경제적 투쟁을 벌여왔다.(대표적 예: 전남 암태도 소작쟁의)

여기에는 조선노동총동맹 등의 좌파운동의 개입이 있으며, 30년대 들어서는 반제국주의 정치·사회적 운동으로 변모되다 30년대 말 일제의 총동원령에 의해 소멸되었다

- ① 일제 시대의 소작쟁의: 산미증식계획의 중단은 무리한 30년대 농업공황(과잉공급) 때문
- ② 1938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모든 쟁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 ③ 소작쟁의는 식민지 지주제(지주에게 유리한 지주·소작제)를 부정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진술이다.
- ④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 ⑤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40. 지도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주했던 동포들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19세기 중·후반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여 간민회를 조직하고 서전서숙을 운영하였다.
- ② 1937년 소련은 한국인의 일본 첩자 활동을 우려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 ③ 20세기 초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동포들은 자금을 모아 독립 운동에 기부하고,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여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 ④ 해방 당시 230만 명에 달하던 이 지역의 동포 가운데서 60만여 명이 해방 이후 잔류하였으나, 영주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 ⑤ 1960년대 중반 이후 의화 획득을 목적으로 수천 명의 광부와 간호사가 이주하였다.

정답: ②

* **연해주:** 1860년 러시아가 들어선 이 지역에 이후 우리 민족이 농경의 목적으로 거주하다가 일제시대에 이르러 많은 독립지사들도 이주케 되는 간도 지역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된 거주지이다.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단체들이 있었으며, 1937년 중일전쟁 직후 한국인의 일본 첩자활동을 우려한 소련 당국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는 아픔을 겪었다.

- ① 간민회, 서전서숙: 북간도
- ③ 최초의 이민지: 미주 하와이(1903)
- ④ 일본(영주권, 참정권 등의 제한)
- ⑤ 서독(광부, 간호사 이민, 현 독일)

41. 다음 자료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조선 총독부는 1943년에 각 도 경찰부장에게 '유림의 숙정 및 반시국적 고비(古碑)의 철거'를 지시하고, 항일 민족 사상과 투쟁 의식을 유발시키고 있는 민족적 사적비들을 모조리 파괴하려 했다. <정규홍, 문화계 수난사>

< 보기 >

- ㄱ. 남원 운봉의 황산 대첩비
- ㄴ. 합천 해인사의 사명대사 석장비
- ㄷ. 해남의 통제사 충무이공 명량 대첩비
- ㄹ. 길주의 북관 대첩비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 항일전승 문화유적에 대한 일제의 파괴

1943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유림의 숙정 및 반시국적 고비의 철거'라는 공문을 각 도의 일본인 경찰부장들에게 발송해 조선의 일본 관련 비석들을 찾아내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때 일본경찰들은 '황산대첩비'를 비롯한 전국의 일본 관련 전승비와 대첩비 20여기('명량대첩비'·'좌수영대첩비'·'행주전승비'·'타루비'·'사명대사석장비'·'황산대첩비'·'정발전망유지비'·'김시민전성각적비' 등)에 이르렀는데 이 중 일부는 실제 폭파되거나 명문이 훼손되는 일대 수난을 겪게 됐다. 를 깨부수고, 비석의 비문을 정으로 쪼아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 ㉡, ㉢은 이 당시 우리의 자랑스런 대일 승전비이자 일제시대에 파괴 대상이었음

㉣ 북관대첩비는 파괴되지 않고 러일전쟁(1904~1905)중에 일본 야스꾸니 신사에 옮겨졌다가 2005년 반환받음

42. 다음 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2점]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 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살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②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제헌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 ③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 ④ 남북 협상 세력은 민족의 분열을 우려하여 이 법에 반대하였다.
- 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친일파 청산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정답: ②

* 반민특위법: 친일파 처벌을 위해 제헌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1948)

광복 직후부터 대다수의 국민과 정당 단체들은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의 처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열망에 따라 제헌 헌법은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헌 국회는 이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

초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쟁을 거듭한 끝에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1948. 9). 그리고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7,000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선별하고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기업가 박흥식, 문필가 이광수, 종교인 최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경찰관 노덕술 등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한다는 명분 아래 친일파 처단을 늦추고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연결되었다는 구실로 구속하였으며,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을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시효가 만료됨으로써 해체되었다.

반민특위는 682건을 조사하여 221건을 기소하고 40건을 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사형이 집행된 자는 한 명도 없었고, 투옥된 자들도 대부분 무혐의 또는 집행 유예로 풀려나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자는 거의 없었다. 친일파 청산은 후일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③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5월 시행된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관(진상규명이 목적이지만 반민특위처럼 처벌이 목적이 아님)

④ 남북 협상 세력인 김구, 김규식 등은 적극 찬성하였다.

43. 다음과 같이 국회가 구성되었던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구분 선거	국회의 원 총수	유신 정우회	민주 공화당	신민당	민주 통일당	무소속	투표율
제9대	223	77	73	52	2	19	72.1%
제10대	231	77	68	61	3	22	77.1%

- ① 인권 탄압으로 인해 국제 외교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 ② 국회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여 제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 ③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 ④ 대통령 연임제 규정이 철폐되어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⑤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공업 구조가 바뀌었다.

정답: ③

* 유신체제: 1972~1979년,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 정우회가 힌트

•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짓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일체 금지시켰다. 또한 언론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노동 3권을 제한하였다.

유신 체제 하의 독재와 억압 정치에 맞서 야당과 종교인, 대학생 등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유신 체제 반대 운동에 대해 긴급조치권 등을 이용하여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 유신 헌법의 특징: 강력한 대통령제(국회 해산권, 긴급조치권(인권 탄압), 국회의원 1/3 지명 추천(유신정우회 의원), 대통령 연임 제한(x))

① 긴급조치 등의 인권 탄압으로 당시 인권을 강조하던 미 카터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③ 직선제 개헌, 민주화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④ 유신체제는 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이고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화 조치는 1987년 6.29 선언 이후이다.

⑤ 60년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위주 -> 70년대: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

44. 고려 광종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실시한 목적을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2점]

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956년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 고려 광종의 노비안검법의 목적:

정답: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한 법이다. 이로써 공신이나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광종의 업적>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수입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어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으며, 지배층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일련의 개혁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 광종은 본격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을 제거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황제를 칭하고, 광덕, 준풍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왕조 성립 초기의 공신과 호족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45. 다음 사료를 읽고 봉당 정치의 변질에 따른 정치적 문제점을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3점]

봉당의 폐단이 요즈음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黨目)에 들어 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 벼슬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는가? 지금 새롭게 중창할 시기를 맞이하여 어찌 잘못을 고치고 신정(新政)을 힘쓸 생각이 없겠는가? 유배된 사람들은 그 경중을 헤아려 이조가 탕평의 정신으로 수용토록 하라. 나의 이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진정하려는 것이다. 혹시 이를 의심하거나 기회로 생각하여 상소를 제기하여 알력을 빛는다면, 평생 동안 금고에 처하여 조정에 참여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영조실록>

* 조선 후기 봉당정치의 변질(일당 전제)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봉당과 견제하는 봉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상대 봉당을 인정하지 않음).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나중에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이러한 환국을 왕이 직접 나서서 주도함에 따라, 외척이나 종실 등 왕과 직결된 집단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정치 권력은 점차 고위 관원에게 집중 되었으며, 언론 기관이나 재야 사족의 정치 참여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봉당 정치의 기반도 무너졌다.

봉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왕권 자체도 불안해졌다. 이에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국왕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46.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흥선 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의 특징과 그 결과를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3 점]



* 흥선대원군의 군역 개혁(호포제)

정답: 군포가 면제되었던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재정이 안정되고 양인의 부담이 줄었다.

<흥선 대원군의 삼정 문란의 대책>

흥선 대원군은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권세가와 지방관, 양반 토호의 토지 겸병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기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였다. 일부 지역에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내어 징세함으로써 재정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래 상민에게만 거뒀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동포(혹은 호포)로 바꾸었다. 이는 군포가 상민에게 집중되어 농민 몰락을 초래하였던 폐단을 시정하고 조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준 환곡제를 개혁하였다. 면민들이 공동 출자로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하여 탐관오리와 토호의 중간 수탈을 막고자 하였다.

이로써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

47. (가), (나)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고려와 조선 시대 지방 행정 조직의 차이점을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점]

(가)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고 5도에는 안찰사가,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으며, 속현과 향·부곡·소 등 특수 행정 구역의 실질적인 관리는 향리들이 담당하였다.

(나) 조선의 지방 행정 조직

-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 작은 군현을 통합해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향·부곡·소는 소멸되었다.

정답: ①고려 시대에는 일반 행정 구역과 군사 행정 구역으로 지방 행정 조직이 이원화되었다. ②고려 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과 특수 행정구역이 다수 존재하였다. ③조선 시대에는 특수 행정구역을 없애고, 군현을 통합하여 지방 행정 구역이 일원화하였다. ④조선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 고려/조선 지방체제 비교:

이원적 -> 일원적

부분적/ 예외적 -> ALL

따라서 조선은 완벽한 중앙 집권 체제

48. 다음은 동학 농민 운동 당시 농민군이 내건 폐정 개혁안 12개조 중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동학 농민 운동 발발 당시의 사회 모습을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점]

- 동학도는 정부와 원한을 씻어 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 것.
-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정할 것.
- 규정 이외의 모든 세금을 폐지할 것.
- 공사채를 몰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돌릴 것.

*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농촌 실정

정답: ①조선 정부는 동학을 탄압하였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던 농민, 천민을 중심으로 동학의 교세는 확장되었다. ②관리들이 각종 명목의 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는 등 부정 부패가 심하였다. ③개항 이후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의 경제 침탈이 확대되었다. ④부채가 늘어난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으며, 몰락하는 상인들도 늘어났다.

*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농촌 실정:

청/일의 경제 침탈로 농촌 피폐
여전한 정부의 탐학
부채 농민/상인 증가
동학의 교세 확장(<-사민평등)

49.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을 당시 우리 나라 주변 정세와 관련시켜 2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4점]

이제 우리 나라는 지역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인후(咽喉)에 처해 있는 것이 유럽의 벨기에와 같다. 지위는 중국에 조공하던 나라로서 불가리아가 터키에 조공하던 것과 같으나, 동등한 권리로 각국과 조약을 맺은 것은 불가리아에도 없던 바요, 조공하던 나라로서 왕이 책봉(冊封)을 받던 일은 벨기에에도 없던 일이었다. ……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 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도 될 것이다. …… 이는 비단 우리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획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 한반도 중립화론 대두의 배경

- ①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적·경제적 우위를 점하였다.
- ② 삼국간섭 이후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 ③ 러시아의 남하를 우려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 ④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 일본, 러시아, 영국 등 열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중립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 갑신정변 이후 중립화론 대두:

기존의 청.일의 대립.경쟁 구도 외에 러.영 등의 침략적 접근 -> 거문도 사건 -> 중립화론(부들러, 유길준)

50. 일제는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찬 위원회(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식민사관을 기초로 한국사를 왜곡하였다. 식민사관의 골자는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500자 내외로 쓰시오. [5 점]

정답: ①우리 민족은 고대 이후로 꾸준히 역사를 발전시켜왔다. 조선 후기에는 자본주의적 맹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한말 일제의 경제 침략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저해되었다. ②어느 나라나 주변국과 정치, 경제, 문화의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정학적 조건이 그 민족의 숙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관계는 명분과 실리를 위한 외교 전략이었다. ③조선 시대 봉당정치는 많은 사대부가 정치에 참여하는 공론 정치였으며,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정치였다. 즉, 분파주의적 당쟁이 아니라 선진적 형태의 정치였다.

* 식민사관 반론:

- ① 정체성론: 조선 후기 자본주의의 맹아의 출현으로 비판
- ② 타율성론: 중국과의 조공외교는 명분상이고 실리 외교임을 주장
- ③ 당파성론: 상호견제적, 공론, 책임정치의 성격을 강조